20대 女 '산소마스크 의문사' 미스터리

광주 용산동 승용차안서

❶ 채무관계 살해 시나리오 작성 어떻게

❷ 시나리오와는 달리 왜 여자가 숨졌나

❸ 계약한 5억원 생명보험 수령자는 부인?

❹ 드라이아이스로 질식사 가능한가

광주의 한 체육공원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산소마스크를 쓴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성이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숱한 의문점을 안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 **사건 개요**=지난 13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체육공원 옆길에 주차된 S(41·나주시)씨의 '29서96××호'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서모(여·26·광주시 동구)씨가 숨져있는 것을 S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의 산소통을 연결한 폴리염화비닐 산소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있었으며,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서 뒤쪽으로 엎드려 한쪽 손을 뻗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가로·세로 50㎝ 크기의 쇼핑백이 놓여있었으며, 쇼핑백 안에는 200㎤ 산소통 10개와 A4 용지 20쪽 분량의 살해 시나리오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와 S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셨으며, 이날 새벽 함께 S씨의 차량을 타고 용산동 체육공원 옆 도로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있었던 S씨는 "술을 깨기 위해 혼자 목욕탕에 간 뒤 돌아와보니 서씨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2년 전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당시 안경테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S씨와 독점 운영권 등을 계약했으나 S씨가 부도나는 바람에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살해 시나리오에는 신용불량자가 된 S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서씨의 요구로 S씨는 아내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 5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2건을 계약한 사실 등이 적혀있었다.

◇ **꼬리를 무는 의문점**=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이 시나리오는 "S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사기로 수면제를 요구르트에 넣어 마시게 한 다음 냉각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를 차 안에 두고 잠을 자다 질식사하도록 하고 나는 미리 준비한 산소마스크를 쓴다"며 S씨의 살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경찰은 S씨가 자신의 살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승용차에 여성을 두고 목욕탕에 왜 갔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S씨가 차량 밖으로 나올 때 열쇠가 안에 있고 문이 열리지 않아 서씨를 그대로 두고 목욕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주차된 차량 문이 밖에서 저절로 잠길 수 없다는 점도 조사중이다. 경찰에서 S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갑갑해 중간에 나왔으며 서씨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 산소통 10개 중 1개가 비어있고, 서씨가 숨져 있는 자세 등으로 미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살해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 관계가 나열돼 있으나, ▲생명보험은 당사자만 계약이 가능하고 ▲따라서 S씨는 서씨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점 ▲보험금 수령자인 S씨의 부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광주광역시장기 어르신생활체육축제'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박터트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체육축제에는 60세 이상 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자치구 대항 체육행사와 문화공연 등을 즐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적장애 아들 살해 암매장

지적장애 부모·둘째 아들 구속영장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큰 아들을 지적장애인인 둘째 아들 등과 함께 무참히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례경찰은 14일 지적장애 1급인 큰 아들(23)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강모(63·구례군 구례읍)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강씨의 둘째 아들(21·지적장애 2급)과 숨진 아들의 선배 박모(37)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2일 정오부터 2시간 동안 구례군 구례읍 자신의 집에서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큰 아들을 주먹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숨진 큰 아들의 시신을 함께 손수레에 싣고 집에서 1㎞ 떨어진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가족은 부모와 아들 2명이 모두 지적장애를 겪어왔으며, 아버지 강씨는 사전에 둘째 아들 등과 공모해 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공동묘지에 큰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고 내려오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나운찬 〈8021〉 김종두

진도대교서 모녀 투신

14일 낮 12시40분께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에서 이모(여·39·해남군 송지면)씨가 딸 최모(6)양과 함께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차량을 운전하며 다리를 지나던 김모(4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숨진 채 발견됐으나 최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최양을 찾기 위해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8시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딸과 함께 진도대교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씨가 평소 경제사정 때문에 괴로워 했었다"는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

광주·전남서 처음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장 홍성봉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전지법이 이날 충남과 대전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첫 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터 승합차서 남녀 2명 숨져

14일 오전 9시30분께 광양시 진월면 한 공터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김모(60·광양시)씨와 박모(여·55·광양시)씨가 함께 숨져있는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와 박씨는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은 채 숨져 있었으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 등이 특별한 외상없이 차안에서 빈 약봉지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음독 등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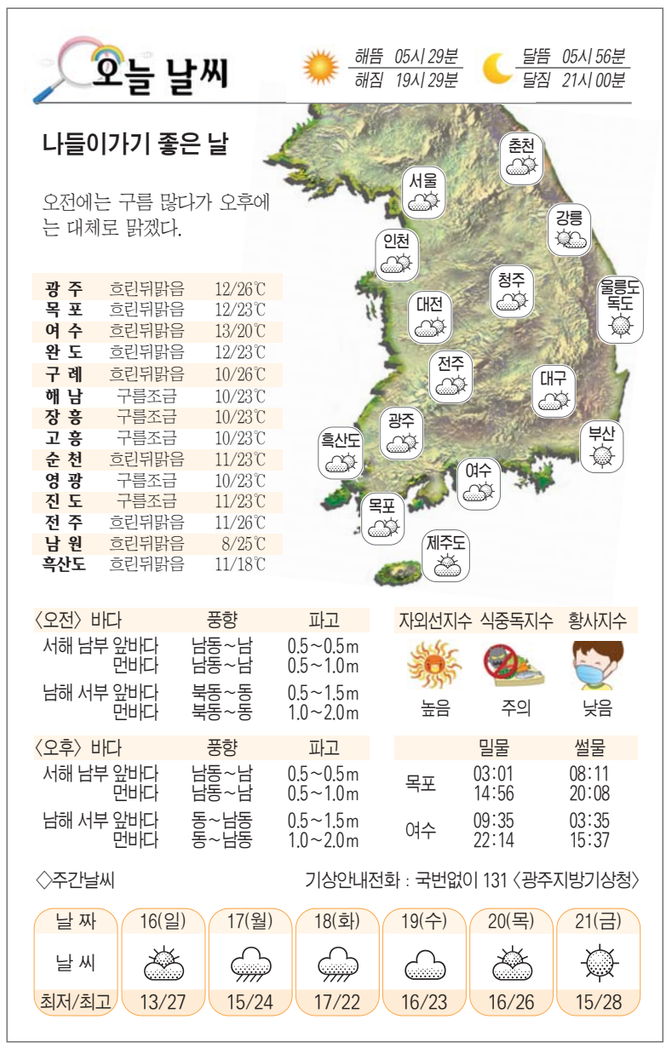
경찰은 숨진 2명의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전남 주말 맑고 화창

주말인 15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끼는 날씨로 나들이하는데 좋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에 점차 벗어나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14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도~1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27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5·18 30주년 광주·서울·부산이 뜨겁다

사진전·노래자랑 등 전국 추모 행사 잇따라 첫 전남도민 기념행사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일(18일)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 국립묘지에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부터 광주·전남과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추모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민주대성회'를 비롯한 '2세와 함께하는 5·18', '5·18 역사기행'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잇따를 예정이다. 16일에는 '5·18 시·도민 대동한마당', '5·18 정신계승 국민대회' 가 열린다.

이와 함께 5월 민중항쟁의 전국화를 위해 서울·부산·경기도 안산·대전·대구 및 경북지역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도 15일부터 18일까지 5·18 사진전, 노래자랑 대회, 연극,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연다.

14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전국의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들과 학생·시민 등 2만여명(5월 누적인원 9만7899명)의 추모객이 찾았다.

또 이날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남도지부 주관으로 5월 관련단체 회원·공무원·도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남도민 기념식'이 열려 5월의 뜻을 기렸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 리허설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화려한 휴가' 프레스 리허설이 14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영화 '화려한 휴가'를 뮤지컬로 만든 이 작품은 15~19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같은 날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양초등학교에서는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이 주관한 '도전! 5·18 골든벨을 울려라'가 학생·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5·18 관련 퀴즈풀이를 통해 5월 정신을 되새겼다.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서구 상무동 쌍학공원에서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오월 무지개' 행사를 개최했고, 북구 근린공원·서구 상무 자유공원에서는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가 열렸다.

■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일정

행사일시	행사명	장소	주관단체
5.15	2세와 5·18 바로알기, 5·18 역사기행	광주일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7	오월 대학생 한마당	추후 확정 예정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5.15	2010 민주대성회	금남로	행사위원회
5.16	시·도민 대동한마당	금남로	광주전남진보연대
5.17	전야제	금남로	행사위원회
5.18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후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5·18구속부상자회
5.21	오월 창작 가요제 '창'	금남로	오월창작가요제조직위원회
5.1~18	5·18민중항쟁 30주년기념 부산행사	부산민주공원~망월동	부산행사위원회

한편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30주년 기념식에서 5·18 관련 단체가 해왔던 경과보고가 동영상으로 대체되며 기념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 아이콘 제조공장서 배관교체 폭발 1명 사망

14일 오전 10시55분께 순천시 별량면 한 아스콘 제조공장에서 임모(39)씨가 벙커씨유 2만ℓ를 보관 중인 탱크 위에서 배관교체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나 숨졌다.

임씨는 폭발로 인해 탱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이 일어나면서 탱크를 덮고 있던 뚜껑이 임씨를 덮쳤다."라는 동료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화투빚 1000원 때문에 멱살잡이

쌍나팔

○…광주의 한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던 60대 남녀가 빌린 돈 1000원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62)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던 중 강모(67)씨가 "왜 사흘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느냐"며 핀잔을 하자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일 전 강씨와 화투를 치던 중 돈이 다 떨어져 1000원을 주지 못했는데, 경찰에서 "강씨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